

데스크 시각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행수니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 국민적인 관심은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할 법한 그의 사법방해와 범죄 경위에 쏠려 있는 듯하다. 정작 더 큰 문제는 김호중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회사 최대 주주의 파산이라는 데 있다. 그의 소속사인 생카엔터테인먼트는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은 임직원 전원 사퇴, 대표 교체를 결정하고 사실상 폐업을 준비 중이라고 전한다.

공범들 사이에서 저항한 22살 청년

김호중과 이 회사에서 한술밥을 먹던 배우 손호준·김광규, 셰프 정호영,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 개그맨 허경환 등은 어떻게든 털고 일어날 것이다. 계약을 해지하고 각자 도생하는 스타들의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타를 보필하기 위해 떠올랐던 직원, 공연 스태프들의 밥벌이는 막막해졌다. 일터가 없어진 가정과 가족의 삶은 처참해진다. 김호중 팬들에게는 우상의 추락이 안타깝겠지만, 내 눈에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할 그들의 삶이 어른거린다. 김호중은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나”라고 입을 닫을

김호중이 남긴 것들

게 아니라 삶이 일그러질 ‘을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했어야 한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자신도 무대 주변을 맴돌던 ‘을’ 아니었던가.

김호중의 사법방해 드라마에는 여러 등장 인물이 있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 김씨 차량 블랙박스를 삼켰다고 진술한 본부장. 이들은 김호중을 살리기 위해, 회사 생존을 위해 나를 선택했다. 자신의 삶과 가족 걱정에 몰부림됐을 것이고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고민의 결과는 범죄자를 도운 피의자라는 남루한 팩트 뿐이다.

유사한 고민을 했지만 다른 선택을 한 매니저도 있다. 22세 사회 초년생인 그는 수차례 김호중이 전화해 허위자수를 증오했음에도 ‘겁이 난다’며 거절했다. 김씨의 부탁을 어렵사리 뿌리쳤던 매니저의 고민을 어렵 짐작할 수 있다. ‘쫓겨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야 할까’, ‘배신자 소리를 듣지 않을까, 죄 지은 놈 따로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하나’ 등등 오만 생각이 스쳤으리라. 결국 그는 내면에서 우러나는 ‘두려움’에 굴복했다. 나약한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죄를 뒤집어 썼을 때 닥쳐올 감당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최소한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 젊은이를 통해 김호중 사건에서 잠깐 스치는 빛을 봤다면 과인일가. 김호중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 담당 판사의 꾸짖음이 그나마 이 청년에게 작은 위로였다.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 없는 사회 초년생인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김호중에게는 세 차례 회생의 기회가 있었다. 음주 사고 후 정중하게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처벌받았으면 될 일이다. 상식으로 처리하지 않아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만 늘었다. 한 2년쯤 자숙하고 여느 연예인처럼 슬그머니 재기를 노려볼 수도 있었다.

범법 행위 덮으려다 자해적 결말

김호중은 막내 매니저가 거절했을 때 범했어야 했다. 적신호에도 엑셀레이터를 더 밟아 자해적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팬과의 약속을 내세워 공연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상식밖 처사지만, 여기에서도 퇴로가 있었다. 가황 나혼아처럼 멋진 퇴장사는 아니더라도 ‘이제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못할 것 같다. 공연을 마치고 팬들의 사랑을 배신한 죄값을 받아야 한다.’ 이 정도 멘트라도 했다면 비난 여론이 마냥 들끓지만 않았을 것이다. 이미 경로를 이탈한 그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고 말했다. 팬들은 사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건 사과가 아니다. 놀랍게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거물급 변호사가 “그동안 한 순간의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 국민이 노여움을 풀어주시기 바란다”라고 대신 사과했다. 어찌 그리 사과에 인색한 것은 정치인들을 꼭 빼놓았을까.

김호중의 막장 드라마가 어느 대목에는 우리 모습이 어른거린다.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다. 벼랑 끝에 매달려 손을 놓아야할 정도로 절박할 때도 온다. 하지만 실수를 만회하려다 핍수를 쓰면 실패한다. 김호중이 일깨워준 교훈이 있다면, 상식과 양심이 새삼 소중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 못할 것을 남에게 시켜서는 안된다는 평범한 진리다.

국산 배추에 수입산 고춧가루 김치

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메뉴판은 물론 사방을 둘러봐도 제품 홍보하는 포스터만 보인다. 이젠 아니다 싶어 계산대 종업원에게 김치 원산지를 물었더니 잘 모른다. 사람 좋은 표정으로 식당을 나왔지만 이쯤되면 한번 해보자는 건가 싶어 은근 오기가 발동했다.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 지배인을 찾아 물었더니 배추는 국산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이라고. 허 참~. 그렇다면 그 김치는 국산산인가? 수입산인가? 고춧가루가 비싸 원가를 줄일 교육책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름난 맛집에서 내는 그 국적불명의 김치에 뒷맛이 더 쓸쓸해졌다.

오래전부터 아는 분의 이모님이 직접 지은 고춧가루를 몇 집만 싸게 판다며 선뜻 주소를 알려주었다. 절임 배추를 사와 간수를 빼고 무, 홍갓, 쪽파는 채 썰고 배, 마늘, 양파, 생강, 새우젓, 까나리액젓에 찹쌀 풀을 섞어 이들을 꼬박 들여 김장을 했다. 처음 한 두 달은 김장김치가 먹을만 했다. 두 세 달이 지나면서 흐물흐물해지더니 나중엔 김치찌개를 끓여도 먹기가 어려울 만큼 물러져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원인이 뭔지 여기저기 수소문해보니 문제는 대충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보관 온도가 맞지 않아서인데 김치냉장고에 들어가 있었으니 해당이 없을 터였고, 다른 하나는 소금이나 고춧가루 등 부재료의 문제였다. 소금에 덜 절이거나 염도가 높아도 배추가 물러지지만 헨나리가 섞인 조약한 고춧가루도 배추를 무르게 해,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이 항산화제 역할을 함으로써 김치가 쉽게 물러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백김치가 일반김치보다 쉽게 물러지는 건 고춧가루가 들어가져 않아서라니, 고춧가루가 비싸다 해도 제값은 하는 셈인 것이다.

지난해 농식품부의 ‘김치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김치 70만 톤 중 수입 김치는 37%인 29만 톤에 달하며, 그중 99%는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한다. 알뜰으로 절임배추를 휘저는 동영상을 벌써 잊었는지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식당의 74.7%가 중국산 배추김치를 쓰고 있었다. 이윤을 남기자고 하는 사업에 원가가 3배나 넘는 국산 김치를 쓴다는 게 어지간한 신념이 아니고서야 어려운 일임을 짐작했지만, 두 조사를 뒤집어 해석하면 우리는 집에서 국산산을 먹지만 남에게는 수입산을 팔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낙담할 일은 아니다.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도 국산 김치를 쓰는 집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주황색 배추 모양에 ‘100% 국산 배추김치’라고 표시된 식당을 찾으면 된다. 이는 김치협회와 외식업중앙회 등 민간단체가 100%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 등을 인증해주는 제도인데 다행히 우리 고장 전남에는 6000개가 넘는 인증업체가 있다니 식사하러 나설 때면 잘 찾아볼 일이다. 가격을 더 받을 수도 없으면서 비싼 김치를 쓰는 그 고집을 인정해준다면 소비자와 생산자, 소상공인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월 광주, 완전한 카타르시스를 위하여

었다는 “나는 광주에 없었다. 하지만 80년 오월의 광주를 기억하겠다”는 나의 다짐이 되었다.

오월의 춤 무대는 아름다웠다. 5월 24일 광주시립발레단의 현대발레 ‘다빈(Divine)’. 무대 전체에 흠뻑 퍼지는 검은 재를 보며 슬픔의 역사가 집착했고 흰 종이배가 창문으로 변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5·18이 쏘아 올린 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5월 28일, 마임이스트 유진규, 지신무 서승아, 소리의 감명부가 펼치는 ‘아직도 오일팔’은 완전한 해원(解冤)을 위한 웅복합 퍼포먼스였다.

‘너의 5월을 들려줘’의 음악인들은 매일 밤 5·18 민주광장 무대를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허림은 5·18 유공자 외삼촌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다. 그는 ‘비건이 개인’의 무대가 아닌 이곳 광장에서 진지하게 슬픔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었다. 전일발딩과 은암미술관에서는 오월 미술제가 열렸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는 ‘기억지도-금남로의 예술가들’이 열렸다. 김남주, 정세현 등 오월을 ‘삶의 심장’으로 살아낸 예술가들의 가슴 벅찬 이야기였다.

남동 5.18 기념성당의 추모 미사는 파격이었다. 입당송 ‘임을 위한 행진곡’, 파견송 ‘광주출정가’는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살아남은 자에게 힘을 주는, 종교적 제의를 뛰어넘어 한 편의 송고한 퍼포먼스였다. 클라이맥스는 5월 26일 밤에서 5월 27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최후항쟁의 시간이었다. 예술가들의 새벽광장 무대는

비장했다. 기타리스트 박성연 등 젊은 음악인 그룹은 5.18 유적지를 돌며 새벽송을 불렀다. 5월 27일 자정, 극단 신명은 도청을 지킨 새벽 전사 14인을 위한 해원의 제사를 올렸다.

이렇듯 5월을 보내며, 나는 카타르시스(Katharsis)를 떠올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보며 우리는 마음에 쌓여있던 우울과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카타르시스를 체험한다’고 했다. 내게 오월의 예술은 프로파간다의 선전이 아니라, 카타르시스를 위한 예술의 최전선이었다. 폭력에 대한 두려움, 희생에 대한 연민을 넘어 슬픔 안에 갇힌 깊고 고귀한 것을 알아차리는 카타르시스의 체험.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고발한 피카소의 ‘게르니카(Guernica)’를 보며 슬픔과 비탄과 아울러 송고함과 정화를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슬픔을 동무하며,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는 예술. 그 현상이 5월 광주에 있다. 광주의 예술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Amor Fati)의 산증인이다. 나는 오월 광주가 함께하는 축제, 완전한 카타르시스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축제가 열리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슬픔을 끌어올려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카타르시스의 축제였으면 좋겠다. 해마다 오월이 오면, 나는 광주를 찾은 것이다. 온전히 슬픔에 머물며, 카타르시스의 자유와 해방감으로 남은 나의 삶을 ‘잔란하게’ 살아내기 위하여.

社說

‘에너지 수도’ 전남, 분산에너지 특화도 최적지

14일부터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대규모 발전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해 송배전 시설을 통해 각 지역에 보내는 지금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대신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이다.

지방자치제도처럼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 지역별로 차별화 된 전기요금 적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전남처럼 전력 생산이 넘쳐나는 곳은 한 전기요금을 유인책으로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넘쳐나 전력자립도가 높은 전남 자치단체 입장에서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은 꺾이는 호기를 맞게 됐다. 나주시의회가 최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한 것도 이런 자신감과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전남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리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내에 소규모 전력 생산 및 이용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전력 판매나 기업 유치가 쉬워진다. 전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단지 등 지역내 신안 해상풍력단지 등 지역내 에너지 특화산업용 분산에너지와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전남도가 14일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는 것도 특화지역 지정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주·울산·부산 보다 앞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입지를 다진 전남은 분산에너지 특화에도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법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 분산에너지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만큼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민들 모두 나서 전남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분산에너지 정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성적자 겪는 한우농가 살릴 대책 마련 시급

전국 한우 농가들이 다음 달 초 서울에서 대규모 ‘한우반납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년 만에 전남을 비롯한 전국 한우 농가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한우를 차에 싣고 상경하려 시도하고, 경찰이 고속도로 통제 등지에서 이를 저지하는 모습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2년에도 한우 농가들이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하며 상경 시위를 추진한 바 있다.

한우 농가들은 사료비·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만성적자를 호소하고 있다. 한우 농가들에 따르면 송아지 구입비로 평균 350만 원과 28~30개월간의 사료비로 600만 원 등 출하할 때까지 총 9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한우 한 마리를 팔면 700만~900만 원 밖에 받지 못한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비 증가,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 소를 키우는데 드

는 비용도 급증했다. 반면 한우 고기 공급 과잉으로 도매 가격은 3년 전보다 30%가깝게 하락했다. 한우를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실정이다.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한우 농가 20% 정도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한다.

한우 농가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타 측산 품목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만성 적자를 겪는 한우 농가를 살리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거부권 행사 때 약속한 대로 축산법을 조속히 개정해 한우 농가 지원책을 마련 하길 바란다. 정부와 한우 농가가 협력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사육 규모를 줄이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無等鼓

목념은 죽은 이가 평안히 잠들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숙연하게 마음속으로 비는 행위를 말한다. 영국과 미국에서 1910년대부터 행하던 추모 방식인 ‘잠깐의 묵상’이나 기도(moment of silence)’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포르투갈에서 브라질의 리우 브라쿠 남작 주재 파리뉴를 기리며 1912년 2월 13일에 행했던 것이 첫 목념행사 기록되어 있다. 같은 해에 타이타닉호 침몰이라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고가 발생하자 큰 충격을

전몰자를 위한 성적이 커졌다. 공식행사에서 목념에 앞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목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에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두 표현 모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뜻한다. 굳이 구별하자면 순국선열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벌인 순국한 분들로 주로 일제강점기에 항거한 독립투사를 이르며, 호국영령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서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해 싸웠는지 혹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나섰는지에 따른 구분이지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

1일 의병의 날, 6일 현충일, 15일 제1연평해전 기념일, 25일 6·25전쟁일, 29일 제2연평해전 기념일 등이 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평안하지 못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평화로운 세상이 오면 좋겠지만 그런 날을 바라기 어려운 만큼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만든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 서라도 보훈에 더욱 신경 써야 하겠다.

/김대성·제2사회부장 bigkim@

목념의 달

받은 영국에서는 추모의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대규모이자 공식적인 목념의 시초가 아닌가 싶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고 목념을 할 일이 많아지면서 영연방(英聯邦)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전통으로 굳어졌다. 우리나라에서 목념이 공식의례가 된 것은 1946년, 늦게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듯하다. 이때의 목념은 일제강점기를 벗어나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독립투사를 위한 것이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의 교전에서 희생된

은편칼럼



옥영석 농협식품 전무이사

동네에서 걸어 다닐 만한 거리에 이름난 대면 알만한 보쌈 회사가 있다. 모처럼 일찍 귀가한 날, 동료들이 즐겁게 식사했고 기쁜 만한 곳이란 추천도 있어 산책 삼아 그 집에 가보기로 했다. 은근 차별화된 외양과 인테리어가 세련돼 보이는 게 어느 레스토랑 못지 않았지만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아 마음에 들었다. 한 두 사람 와서 보쌈을 주문하기 부담스러울까봐 1인용 보쌈도 있으니 편하게 주문하라는 배려가 돋보였다. 프랜차이즈라고는 해도 이름난 기업에서 나오는 음식인데다 그것도 대표 메뉴이니만큼 기대를 가득 안고 보쌈정식을 주문했다. 보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갓 삶아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수육에, 무말랭이와 갖가지 양념이 푸짐한 김치가 먼저 생각난다. 그래서 이름도 그냥 김치가 아니라 보쌈김치가 아닌가.

그러나 10여 분 만에 식탁에 놓인 김치는 검붉은 빛깔이 도는 게 미심쩍은 데다 막상 먹어보니 아삭한 맛은커녕 물렁한 식감에, 양념은 있되 심심하고 맛있는 게 중국산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원산지 표시

기 고



정은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지난 6월 1일 연세대학교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오월 어머니의 노래’가 막을 내렸다. 오월 어머니들이 가슴에 품은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낸 공연이었다. 어머니들의 피 끓는 무대에 나는 기립박수를 헌정했다. 나는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졸업 후 광주는 떠나왔다. 올해 30여년 만에 광주에 돌아와 처음으로 광장과 극장, 전시장에서 온전히 5월 광주를 보았다.

오월극은 살아 있었다. 5월 18일, 518번 버스를 소재로 펼쳐낸 극단 토박이의 ‘버스킹 버스’를 보면서 오월 연극의 끈질긴 생명력에 감탄했다. 5월 19일에는 민주광장 천막 무대에서 만난 극단 신명의 마당극 ‘인연가 봄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작품의 존재를 안 것은 작년 광주비엔날레, 알리자 니센바움(Aliza Nisenbaum)의 그림에서였다. 5월의 햇빛이 작렬했지만 바코중, 시민군, 백구두, 여학생 등 역할에 몰입한 배우들의 에너지는 민주광장을 뚫고 나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서 본 체험극 ‘나는 광주에 없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본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과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FAX 222-0195)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반 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